

6개월이 지난 이야기



조원장

다니스코 코리아 대표

6개월이 지난 이야기

6개월 전 어느 날 혼잣글을 써 본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을 풀어 볼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어딘가에 기고를 하려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부하 직원들도, 기자인 제 친구도 모두 말렸습니다. 나아서 돌팔매를 맞을 일이 있느냐. 회사 문을 닫을 작정이나.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 돌팔매질도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써 두었던 모두들 다 아시는 내용을 여기에 옮겨 보려 합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났으니 더 이상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고 김이 빠져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의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분들 모두 그랬을 겁니다.

GMO 유감

저는 전세계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다는 북유럽회사에서 근무합니다. 더구나 저희 회사는 정직성과 신뢰가 생명인 먹거리에 들어가는 식품소재를 만들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북유럽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또 중국에도 식품소재를 만드는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론 요즘 논란이 많은 미국산 옥수수를 가지고 식품소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옥수수가 왜 논란거리인지 아십니까? 유전자 변형을 하여 병충해에 강하며, 농약을 적게 사용해도 되고, 소출도 많은 옥수수가 있는데 그 안전성이 불분명한 것 같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얼마 전 부산항에 도착하는 미국산 옥수수의 하역을 반대하기 위해 프렌카드를 들고 데모를 하였습니다. 또 어느 여당 국회의원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진짜 국민의 건강과 국익에 대한 고려는 별달리 해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법률제정을 강력히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일본과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드는 과당 fructose의 한국과 일본 판매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는 항상 10월 중순 경에 한꺼번에 수확하게 되는데 최근 있었던 흉수 때문에 예상보다 소출이 줄어들어 내년도 가격에 인상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가격인상요인은 세계적인 옥수수 수요는 늘어나는데 경작면적은 늘어나지 않아 재고가 점점 줄고 있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가격상승이 생길 것이며 장기적으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 것 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옥수수는 식품산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중요한 원료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대부분의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지요. 쌀을 제외하고는 곡물의 자급 자족률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 옥수수 혹은 옥수수가공품을 수출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남미의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나라도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이지만 옥수수와 대두에 관한 한 미국에 비하면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미국산 소의 광우병 소동이 한차례 지난 우리나라는 요즘 다시 미국산 옥수수 및 옥수수를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가공식품의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 혹시 유전자변형을 통하지 않은 옥수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없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미국친구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작하는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이 유전자변형을 통해 병충해에 강하고 소출이 높은 것들로 구성된 것으로, 별도로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들어야 하므로 가격도 무척 높아질거다. 일종의 잡종교배 개념으로 그 안전성과 효율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 만을 미국식품의약청의 승인 하에 재배되는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을 포함 모든 미국국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옥수수와 소고기가 왜 한국에서는 그토록 경계 대상이 되는 것 같느냐라고 거꾸로 물어 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일본 친구는 빙긋이 웃기만 합니다.

유럽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 무척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 표시기준도 매우 높기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옥수수나 대두 혹은 그 가공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무역장벽입니다. 유럽은 스스로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농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농산물 교역에 여러가지 장벽을 쳐 놓고 있는데 GMO 표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럽의 농부들과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발판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놓

벽인 것입니다. 총칼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식량 자급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유럽은 식량자급이 가능하므로 까짓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들어 오면 안됩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많은 농산물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또 남미나 미국 또 호주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산 옥수수의 GMO 논란이 생기면서 한국의 식품업계 내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옥수수가 문제가 있다고 배가 부두에 닿는 것을 못하게 하여 국내에서 옥수수를 가공하는 회사들은 도산 일보직전에 와 있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국내 유수의 음료나 과자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등돌림이 무서워 국내에서 제조된 옥수수가공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산도 안됩니다. 그럼 어디서 사와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아있지요.

요즘 국내의 식품회사들은 원료로 사용할 옥수수 가공품을 중국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미국산은 안된단니까, 미국산 옥수수로 만든 것은 GMO 라 위험해서 안된단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은 중국의 업체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옥수수 가공품들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자국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지방정부가 발행한 서류이거든요.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공식품의 안전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친구들도 두손 두발을 들고 맙니다. 미국의 식품의약청(FDA)은 먹거리에 관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청 말은 믿지 않아도 미국 식약청의 말은 믿습니다. 누가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미국 식품의약청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씀들이 없습니다. 버젓이 멜라닌사태 같은 것이 일어 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한국의 식품업체들은 어찌해야 할지 그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국산원료를 써야 하나, 미국산을 써야 하나 아니면 중국산을 써야 하나. 뭐가 정답인지 모두들 잘 알고 있는데도 힘있는 단체의 눈밖에 나지 말아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과, 과학자들 보다 소비자저지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말 빨이 더 센 것에 회의를 느끼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회사를 위해 일한다면서 웬 말이 그리 많냐구요? 무슨 소리, 저도 미사랑 쌀과자를 좋아하는 어엿한 대한민족 국민입니다. 단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며 그네들의 비즈니스 방식과 생활에 대한 이해 좀 더 할 뿐이지요. 중국산 식품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중국인 동료들도 무시할까요. 반대입니다. 서양회사에서 근무하지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들이 중국인과 일본인 동료입니다. 더 빨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스템이 투명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기대며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사는 동양적인 라이프스타일은 아무래도 서양의 시스템보다 투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얘기하는데 그냥 믿어줘야지 증거

를 대라 하면 너무 야박하잖습니까? 반대로 야박한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서양인들은 투명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였던 저는 '품위있고 예의 바른 국제인이 되자' 란 우아한 표어 및 신조를 우리 가족을 포함 주변에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표어를 '쪽 팔리지 말자' 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유럽과 아시아 동료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해 찢찢매고 난 지난 7월 이후입니다.

제발 쪽 팔리지 맙시다. 그리고 뭐가 우리들에게 이익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론에 밀려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느 관료의 무책임한 언급을 유발한 GMO 식품의 표기기준 강화 운동은 단지 세련된 모습을 띤 또 다른 형태의 광우병 사건일 뿐입니다. 촛불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조원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아마 GMO 표시기준 강화운동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개정된 법률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안전과 신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게 될 쯤 다시 바뀌어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반미운동은 너무나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기간 우리들에게 불신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